

60년이 흘렀습니다.
1964 / 2024



HCCC 1기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이 작은 책자는 **formal** 한 성격은 못됩니다. 1960년에 창설된 HCCC 1기가 60년이 흐른 2024년 지금까지 그맥을 이어 모임을 가지고 있기에 그 흔적들을 모은 것입니다.

물론 1기생들도 모두 이제는 70대 후반의 늙은이들이 되었지요. 그러나 저희들의 스승이었던 강용원 선생님과 소중한 추억들을 조금씩 모으고 1기들의 글 몇 개를 올려서 사진과 함께 만든 정말 간단한 **Personal Booklet**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Digital**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옛 아날로그방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저희 1기들이 그간 맺어온 끈끈한 정과 강용원 선생님과 만남을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책자를 만든 것만으로도 행복한 마음입니다.

HCCC 1기를 만들며 - 강용원

— 60년이 지난 오늘 —

1964년 서울의 봄은 봄 답지 않았다. 해 넘어가는 석양 줄 끊어진 기타를 들고 끝없는G선의 엘레지를 타는 우리들 모습이었다. 4.19 태풍이 휩쓸고 간 대학 캠퍼스는 쥐구멍 뚫린 듯 흥흥했다. 이때를 놓칠 세락 북한의 대남공작은 특히 학원가를 중심으로 치열했다. 이데올로기 흑백논리 시대였다.

대학 캠퍼스는 온통 헛간에 구멍 뚫린 듯 남파 간첩이 포섭할 인재를 찾아 자신도 모르게 용공집단에 명단이 올라있고 귀퉁이마다 술렁이는 혼란과 그리고 방황의 시간이었다. 무신론 실존주의 까유나 싸르트르가 지성을 과시하던 시절. 어디를 가도 "이방인"의 망령이 그림자처럼 우리 의식을 따라 붙고 있었다.

그때 우리들은 어디에다 마음 둘 곳을 찾아 헤매 었다. 어두울수록 좋은 침침한 다방 아랫 구석 담배연기 자욱한 음악 감상실이 유일한 쉼터였다. 어두울수록 편안함을 택한 어두운 박쥐시대를 살고 있었다. 4.19를 전후한 우리 세대의 피잔한 젊음들의 모습이었다.

그때 미국유학에서 돌아오신 김준곤 목사님은 중구 저동에서 학생 신앙운동을 시작하셨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목사님을 만났고 내가 했던 일은 <지성의 귀로>라는 팜플렛 같은 프라이어를 만들어 드리는 평범한 알바생이었다. 학생간사로 목사님을 도와 보필하는 모든 일은 문설같은 설교초안을 만들어 주시면 한글 문법에 맞추어 정리하는 일을 주로 했다.

그러다가 그해 1964년 1월에 "CCC편지"를 정기 간행물로 발행하게 되었다. 그때 표준으로 가리방에 초를 문힌 초종이를 위에 대고 철필로 글자를 굵어서 프린트를 하던 때였다. 나는 그 시절 부터 요새 말로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저동 회관에서 1주에 한번 정기 집회가 열리고 학생회가 만들어졌고 지금말로 집회 순서지 후보를 Crusade라는 타이틀, 그때 "정신병 초기증세" 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글을 써서 올렸다 -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독선 이요 건방진 자랑 삼아 올리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곳도 대상도 없기때문에 여기에 한마디 올려 보는 것이다. 양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당시 최상의 질로 해보라는 문장가이면서 유명 설교가인 김준곤목사님의 뜻에 따라 동아출판사 사가 처음으로 독일에서 들여온 하이델 베르그라는 최신 인쇄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목사님은 타고난 글 솜씨에, 시인 김현승과 친구이고 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다.

그당시 인쇄 형편으로는 최고 수준 고급인쇄로 “CCC편지” 를 발행했다. 그때 일반 교회 문서중에 CCC간사였던 하용조목사가 온누리교회를 시작하고 <빛과 소금>이라는 초호화 잡지를 발행 한 것 말고는 내가 알기로는 최초의 기독교문학의 시도 같은 작은 시작이었다.

나는 그때 두가지 일을 했다. 한달에 2회씩 bi-weekly “CCC 편지”를 발행하는 일과 를 모집해서 지도하는 일이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때 부터 Boy Scout를 했다. 이상한 경험이었다.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애들을 Boy Scout조직으로 묶어 놓으면 서로 도와주고 친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 단복도 멋이 있어 좋았지만 삼지를 펴고 외우는 3선서 12규율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는 표어가 좋았다. 반조직이 7명있고 반조직 위애 도반이 있었다. 도반이 모이면 대를 이룬다. 나는 반장, 도반장을 거쳐 대장으로 1966년 태릉잼보리 대회 김종필 총재가 되어 대회장을 할 때까지 끝을 냈다.

내가 조직했던 HCCC는 내 머리 속에 있던 Boy Scout 조직이었다. 그래서 반별 모임 대별 모임인 전체 모임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때 내생각은 앞으로 멀리 보고 이단체가 살려면 이를 뒷받침해서 연결지을 엘리트 그룹이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를 이끌었던 “화랑도”같은 엘리트그룹으로 생각하고 그런 확신이 있었다.

순론으로 정리하신 목사님은 옛날 사랑방 같고 주막 같은 방의 세포조직 의 원본으로 CCC운동의 핵심 단위로 정리하셨다

나중에 이운동은 순운동이라는 미국 본부에서 CCC운동의 핵심이 된이라는 새로운 운동 국제조직으로 발전시켰다.

나는 Boy Scout조직 화랑도를 의식해서 만들었던 조직이었다. 초기에 이룩된 14000 조직 에 김준곤목사님도 좋아 하셨고 몇차례의 수련회도 적극 참여지도 하셨었다. 지금은 CCC한국 대표이자 국제CCC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성민박사총재를 맡아 미주KCCC후신으로 활발하게 자라고 있다.

당시 지금도 그럴겠지만 소위 일류고교 6곳, 남자 경기 서울 경북 / 여 여자 경기 이화 숙명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조직이 되었다. 내가 충분한 지도는 못했을 지라도 HCCC 1기는 너무 훌륭한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의 정치. 경제. 과학. 외교. 복지. 제약분야에서 나라의 큰일을 담당하였고 자랑스러운 그룹인물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도 좋겠지만 당사자들의 사회적 정치적으로 루가 될까 싶어 숨겨두겠다. 물론 지금 HCCC기도 70대 중반을 넘어 노인들이 되었다. 그러나 1964년에 만들어졌던 그룹이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모임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 1964년 문예지에 이어 60년 지난 2024판 기념호까지 발행한다고 한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보람을 여기에서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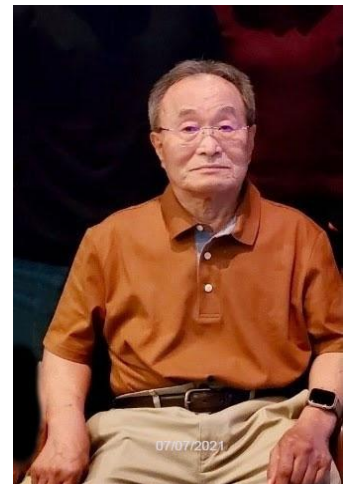
나는 평생을 대학 캠퍼스에서 그룹운동을 해온 사람이다. 이런 그룹은 본적이 없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체로서가 아닌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정”이라 할까 끈끈한 접착력 그 위에 위에 있는 무엇이다. 교회적인 용어로는 간단하지만 그것만도 아닌것 같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들의 인품은 고상하다. 아주 깨끗하다.

나는 이제 달려 갈 길을 거의 다 온 것 같다. 내가 한일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HCCC1기를 창설했다는 사건이다.

HCCC 1기들은 나의 꿈이요 비전이요 내인생의 보람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들 가슴에 내가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강용원

2024년 봄



HCCC 1기 하기수련회 1964. 여름



1기들 현역에서 열심히 뛸 때 나이 **30대**



우중의 문안 - 조경호

우리 1기생들이 고2 때였다. 당시 우리를 지도해주시던 강용원 선생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경기도 '입석'에서 요양하고 계셨다.

선생님의 안부도 궁금했고, 인사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몇 명이 입석으로 가기로 했다. 그때가 아마도 한여름 방학 무렵이었을 것이다. 하필 그날 비가 후드득 뿌리고 있었다.

당시에는 고교생들은 딱히 외출복이라는 것도 없었다. 모두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모였다. 5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었나?) 시외버스정류장이 근처였을 텐데, 동대문 쪽이었을 것이다.

'입석'이란 곳은 물도 맑고 공기가 좋은 곳이었다. 우중에 뜻밖에도 제자 몇 명이 들이닥친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너무 반가워하시며,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셨다. 아마도 생각지 못한 일이라, 많이 반가우셨던 것 같다.

선생님이 계신 곳은 시골의 자그마한 집이었는데, 마당에는 몇 마리의 닭과 병아리들이 땅을 쪼아대고 있었다. 아마도 당시에는 선생님의 모친께서 선생님 건강을 뒷바라지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였다.

재잘재잘. 왁자지껄 수다도 떨고 모친께서 준비해 주신 식사까지 대접받았다. 말이 병문안이지, 우리에게는 어쩌면 여름철의 나들이였을지도 모른다.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비가 너무 세차게 퍼부었다. 선생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버스로 향했지만, 개울물이 너무 세차게 흐르고 불어나서 버스가 건너가기가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생님은 어찌해서든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내고 싶어서, 밧줄을 잡고 손전등을 들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신 것이 기억에 생생하다. 밤이 늦어지니,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셨나 보다. 선생님은 우리 5명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룻밤을 묵게 하셨다. 다행히 다음날 비가 그쳤고, 선생님은 당신 병아리들이 무사히 버스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시고 돌아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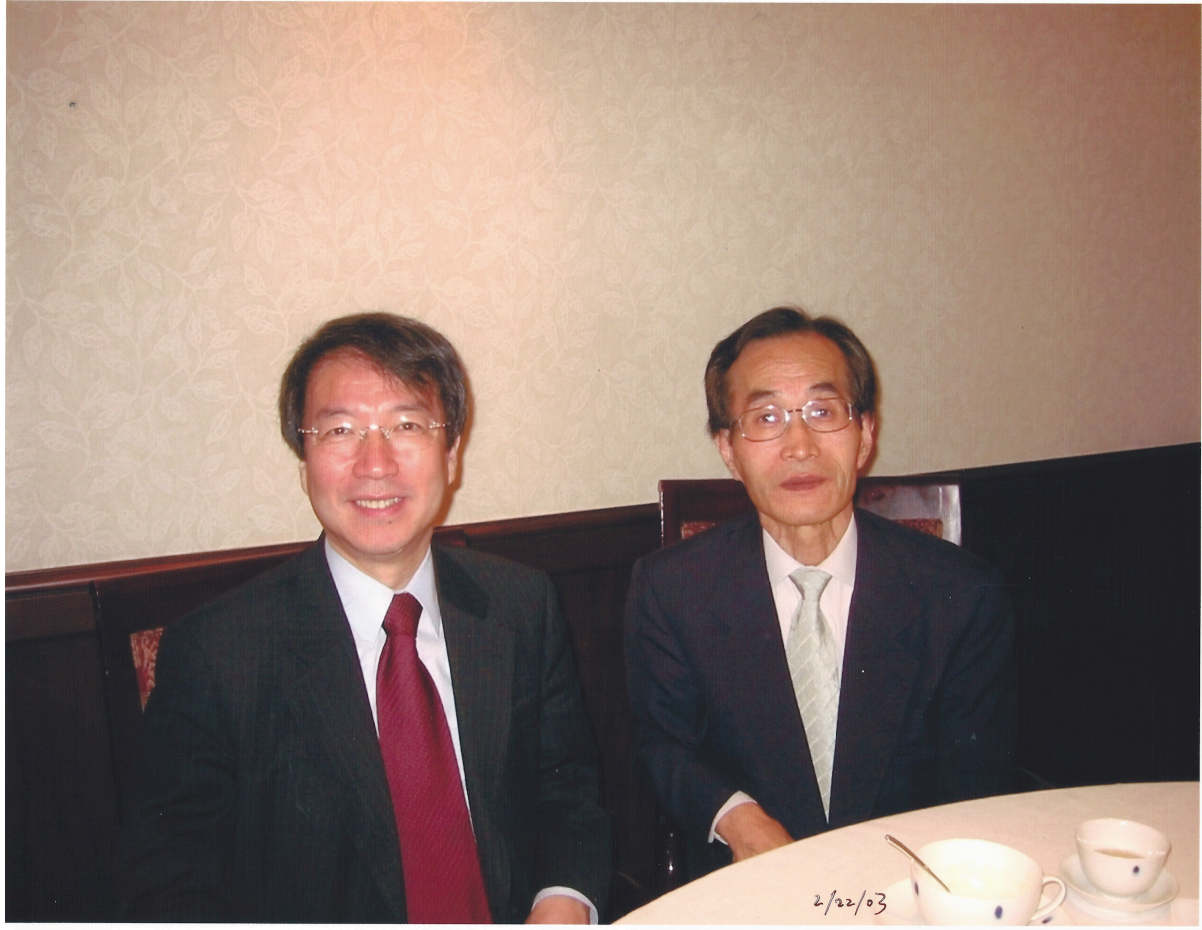
내가 '입석' 방문으로, 특히 기억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있다. 점심이었는지, 저녁이었는지, 우리들 식탁에 닭백숙이 올라왔던 일이다. 그것은 아마도 선생님의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마당에서 키우시던 씨암탉을 잡으셨던 것이었으리라. 이런 사실도 후에야 깨달았으니, 그 때의 우리는 철부지나 다름없었다.

강 선생님과 우리 1기들의 인연 중 잊히지 않는 추억 한 조각이다.

1기 사진



1기들 30대 조금지났네



정운찬 님(국무총리 역임)



임성준 님 훈남 외교관

짜증스런 벚꽃 - 김영호

(전)대구가족상담센터 소장 김영호
2016.04.09. 영남일보 게재

활짝 핀 벚꽃이 짜증스러울 수 있다니 그런 느낌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이어서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울증이 심한 나이든 부인을 뒷자리에 태우고 목적지로 가고 있었다. 마침 벚꽃이 만개해서 온통 꽃 세상을 이룬 벚꽃나무 밑을 나풀나풀 떨어지는 꽃잎을 피해 가듯이 조심스레 운전을 하면서 속으로는 “아! 참으로 아름답다!”고 연발로 외치고 있었다. 그런데, 조용한 차안의 정적을 깨고 뒷좌석의 부인이 “아휴! 벚꽃이 뭐 저렇게 짜증스럽게 피었어!” 하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었다. 벚꽃이 짜증스럽다니! 순간 귀를 의심했으나 바로 다음 순간 이 부인이 깊은 우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떠올라 다소 이해가 되었다. 그래도 그렇지 이토록 화려하고 아름다운 만개한 벚꽃의 장관이 짜증스럽다니!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남아 있었다.

나는 벚꽃이 아름다운데, 저 부인은 어떻게 짜증스럽게 느껴지지? 의문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본 것이 맞나 저 양반이 본 것이 맞나? 누구나 자기가 본 것을 진실로 생각하는데, 누가 맞을까? 두 사람 다 맞을 수가 있다. 그럼, 벚꽃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름다운가? 짜증스러운가? 혹시 벚꽃은 짜증스럽고 아름답게 잘못 느끼고 있는 걸까? 마침 비둘기 한 마리가 무심히 공중을 선회하고 있었다. 비둘기에게 벚꽃이 어떠냐고 물어 본다면 뭐라고 답을 할까? 비둘기는 무심하니까 그저 희고 뿌옇다가 바람 불면 펄펄떨어질 뿐이라고 할 것 같다. 성철스님께 여쭙었으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셨으니까 벚꽃은 벚꽃이라고 하시겠지. 맞다! 벚꽃은 벚꽃일 뿐인데 저마다 아름답네 심지어 짜증스럽네 하고 있구나. 생각은 흘러흘러 벚꽃은 벚꽃일 뿐이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하였다.

그런데, 벚꽃은 벚꽃인데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왔고 짜증스러움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냥 벚꽃일 뿐인 것을 나는 아름답게 보았고 이 부인은 짜증스럽게 보았다면 그 느낌의 발원지가 각자의 마음속이라는 점이 확실하다. 나는 내 마음속의 아름다움을 벚꽃에 뽐어 붙여서 아름답게 보았고 이 부인은 자신 속의 짜증스러움을 벚꽃에 뽐어 붙여서 짜증스럽게 본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 자기 마음속을 바깥 세상에 내비추어 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 무학대사께서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고 하셨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며 산다.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은 아름다움을 자주 보고 짜증이 많은 사람은 짜증을 자주 보는 것이다. 벚꽃을 본다고보다는 벚꽃을 빌미로 자기 마음속을 본다고 하겠다.

벚꽃일 뿐인 벚꽃을 자기 나름대로 보는 방식은 미워하는 아이에게도 적용이 된다. 자식 중에 유독 한 아이가 밉다면 그 아이는 그저 아이일 뿐이다.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를 밉게 본다면 벚꽃을 짜증스럽게 보듯이 아이를 밉게 본다고 볼 수 있다. 그 아이가 정말로 미운 아이이라면 그 아이는 한 번도 안 미운 적이 없어야 한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미운 아이이어야 한다. 엄마도, 형제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모두 미워해야 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미운 아이가 맞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 집에서 부모에게서 미운 털이 박혔겠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귀여워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할 지경이고 친구들에게는 “짱!”이고 선생님께는 칭찬도 받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미운 아이가 아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만 미운 아이이다. 마치 벚꽃에 자기 짜증이 부착되듯이 자신의 미움을 아이에게 부착시키고 미워하는 것이다. 자기를 미워하는 모양새이다. 아이만 미운 것이 아니다. 가까이는 남편도 밉고 아내도 밉을 수 있다. 이 모두가 자신의 미움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최선의 좋은 마음을 내보내는 것이 맞다.



평생을 노인들의 복지와 상담에 헌신한 김영호 님

경산 과수원 - 조경호

내가 태어난 곳은 대구이다. 말하자면 내 고향은 대구라는 말이다. 그런데 대구보다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야말로 마음의 고향이 있다. 그곳은 경북경산의 와촌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성장하여 대학 시절까지 거의 해마다 여름방학이면 가곤 했다. 사촌오빠의 와촌 과수원이다.

1950년대 중반이었으리라. 대구 초등학교에 다니던 꼬맹이 초등 1년생 무렵부터 무더운 여름이 오면 친척 조무래기들은 의례, 와촌 과수원으로 몰려가곤 했다. 지금은 대구시로 전입되었지만, 그 무렵에는 기차로는 30분, 버스로는 거의 1시간을 가야 하던 먼 곳이었다.

대구시 외곽에 있던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자주 있지도 않은 경산행 버스를 시간 맞추어 타려면 한참 동안 기다려야 했다. 좁은 버스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로 만원이었기에 꼬맹이들은 앉기는커녕, 손잡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리저리 밀리면서 가야 했다. 기차로 가면 하양역에서 내려서 다시 와촌가는 버스로 갈아타야 하는데, 자주 다니지도 않는 버스 시간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시기였다.

버스가 한 시간정도 달려서 내려준 와촌면이다. 온 힘을 다해 짐 보따리를 끌어내며 차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은 확 끼치는 논외 비릿한 내음이다. 사방은 온통 초록빛 논이다. 이어서 들려오는 것이 개구리들의 왁자지껄한 합창 소리인데, 엄청 시끄럽다. 그래도 팔을 벌려 숨을 크게 쉬면 정말 기분이 좋다. 와촌이라는 작은 면은 어찌 보면 씨족 마을이다. 거의 20, 30호가 못 되는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가 인척으로 얽혀있다. 좁은 마을 황톳길을 들어선다. 마을 집들이 풍기는 냄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황토 흙냄새에 벗짚냄새를 더하고, 소죽 끓이는 냄새를 다시 더하고, 마지막으로 독한 곰팡대 담배 냄새를 더했다고 하면, 비슷한 냄새가 되리라. 악기로 치면 높은 바이올린이 아닌 낮은 첼로의 느낌을 주는 싸 하고 몸을 뚫고 지나가는 묘한 시골의 냄새다. 그런데 이런 지독한 냄새가 싫지 않다. 어른들은 이 냄새를 구수한 냄새라고 했다.

뜨거운 땀별 아래로 다져진 황톳길을 따라. 좁은 골목길로 들어선다. 황톳 길은 가끔 금싸라기가 박혀있기라도 하듯, 햇빛에 반짝였다. 마을의 낮은 흙벽 담은 진흙에 벗짚을 섞어서 만든 것인데, 키가 낮아서 나 같은 꼬맹이도 까치 발을 들면 집안 틈마루나 외양간이 보일 정도였다. 작은 마을의 골목길을 나서면 저 멀리 가므스레히 사촌오빠의 과수원이 보인다. 온 사방이 진녹색의 논밭인데 과수원의 색만은 조금은 은회색을 띤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한다. 당시에는 농지 구역 정리가 되지 않았던 터라, 논밭의 경계는 마치 미로의 거미줄같이 엉켜져 있었다. 좁은 논둑길을 바로 찾아 들어서야 한다. 자칫 잘못된 다른 논둑길을 들어서면 과수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도 엉뚱한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특히 보름달이 뜬 밤에는 맞는 논둑길을 찾기는 정말 어렵다. 모든 논에 보름달이 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고수와 함께 가야 한다.

구불구불한 논둑길을 지나 과수원 문 앞에 다다르면 탱자나무 울타리의 냄새가 향긋하다. 사촌오빠의 집은 과수원 가운데에 잘 지어진 그야말로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이다. 안채, 사랑채. 2개의 광, 돼지우리, 외양간, 행랑채 그리고 디딜방아가 있다. 특히 사랑채는 방 끝에 누각처럼 마루를 깔고 주위는 예쁜 나무로 난간이 장식되어있다. 보통 사극영화에서 대갓집에 손님을

맛이할 때 술상을 나가서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아늑한 공간이다. 누각의 지붕은 버선 발같이 기와의 모퉁이가 올라가 있어서 정취가 더 하다.

광 하나는 작은 규모인데 주로 농사지는 곡물이나 콩, 팥, 찹쌀, 꽃감 등을 저장하는 곳으로, 항상 맹꽁이자물쇠가 걸려있었다. 다른 광은 상당히 규모가 크다. 이곳은 수확한 사과를 껍질에 넣어 상품으로 내가거나, 지하에는 사과를 저장하는 곳이다. 많은 나무 껍질과 벚단이 쌓여 있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를 들여다보면 사과 향기에 취할 정도로, 짙은 사과 냄새가 코를 찔렀다. 행랑채는 일꾼들이 머무는 곳이다. 옛날에는 머슴들이 머물렀으리라. 문짝은 너무 낮고 방의 벽은 온통 담배 진으로 검게 찌들어,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 방에는 몇 개의 목침이 뒹굴고 있었다. 디딜방아는 위에 걸린 밧줄을 잡고 널뛰듯 발로 방아나무를 디디면서, 절구에 담긴 곡식을 찧는 식이었다. 꼬맹이들은 키가 작아서 밧줄을 잡을 수가 없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었다.

디딜방아를 지나 집 뒷문으로 나가면, 앞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새보'이다. 새보는 사촌오빠께서 과수원에 딸 물을 마련하려고,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만든 보다. 그런데 이 보가 너무 명물이다. 길이는 약 100m가량 되고, 폭은 넓은 곳은 10m 좁은 곳은 5-6m 정도이니, 얼마나 멋진 수영장인가. 폭이 넓은 끄트머리 쪽은 깊이가 2m 정도로 깊지만, 다른 곳의 물 깊이는 1-1.5m 정도이다. 물이 땅에서 솟아나다 보니, 여름에는 물이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겨울 아침에 새보에 나가면, 물 위로 나즈막이 물안개가 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욱이 새보 곁에는 독이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막아주고, 독을 넘으면 상당히 넓은 모래사장(강변)이 있다. 낙동강 줄기가 조금씩 흘러서 발목까지 물이 흐르기도 한다. 모래사장을 건너면 야트막한 산이 자리 잡고 있어서, 강변에서 놀다가 산에 오르면, 멀리 낙동강 줄기가 은빛처럼 흐르고 있었다.

새보는 조무래기들의 너무 좋은 먹감은 수영장이 되고, 해질 무렵이면 동네 아낙들이 종일 일하고 땀에 전 몸을 씻어내는 곳이 되기도 한다. 새보의 제일 끝부분에는 갈대가 자라서 여인네들이 숨어서 몸을 씻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새보에서 먹을 감고 독을 넘어 백사장에서 뒹굴다가 산으로 올랐다. 산딸기를 따 먹은 입술에 붉은 칠을 한 채로, 조무래기들은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내려온다. 부엌에서 일하는 언니가 내가는 참에는 간 고등어구이와 떡배기 위로 솟아오른 계란찜도 있었다. '와, 점심 맛있겠다.' 잔뜩 기대로 부풀어서 고모가 밥 먹으라는 소리가 나기만을 기다렸다.



“밥 먹어라.” 우리를 부르는 소리와 함께, 주르르 안방 대청마루로 달려갔다. ‘오잉! 이게 뭐람!’ 우리의 점심 밥상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커다란 솥 양푼에 가득 담긴 보리밥, 그 위에 꽃힌 숟가락 몇 개, 그리고 열무김치도 없고, 된장찌개도 없다. 수박껍질 안쪽 흰 부분만 긁어서 대충 고춧가루만 뿌려 만든 수박 나물이 전부였다. 젓가락도 짝이 맞을 리가 없다. 처음에는 못 먹을 것 같던 한심한 점심상도 시간이 지나자, 달려들지 않으면 금세 보리밥이 동이 나기에 솥 양푼에 빠른 속도로 숟가락을 들이밀 정도로 익숙해졌다. 밤이 되면 모기향을 피우고 감자, 옥수수 그리고 수박은 제대로 먹을 수 있었다.

시골의 여름밤 하늘은 그야말로 별이 쏟아질 듯, 찬란하다. 그믐날이 다가오면 달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로 밤은 어두웠다. 장난기 많은 작은 오빠는 저녁을 먹은 후 조무래기들을 데리고 강변으로 나갔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 강변에는 벌레 소리와 잔잔히 흐르는 물소리뿐, 정말 고요했다. 이 분위기에서 시작되는 오빠의 귀신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던 조무래기들은 “으악 !”

하는 오빠의 소리에 너무 놀라서 오줌을 잠금잠금 싸기도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놈도 있었다. 오빠가 즉석에서 지어낸 귀신 얘기지만, 조무래기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모두 오빠의 못한 자락씩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온다. 마치 소 대장을 따라 들어오는 패잔병 모습이였다.

밤이 깊어 자야 할 시간이다. 사랑채에 고모가 던져준 것은 두 어장의 삼베 이불뿐이다. 베개가 제대로 있을 리 만무하다. 차가운 방바닥에서 서로 이불 한 자락이라도 발을 넣으려고 잡아당기고 있다. 그야말로 흥부네 가족의 모습이다. 그래도 낮 동안 멋대로 뛰어다닌 터라, 모두 잠에 곪아떨어진다. 한밤중 문득 눈이 떠지면, 한지 여닫이창에 비치던 푸른 달빛이

어찌나 신비롭던지. 아직도 눈에 선하다. 거꾸로 자는 농, 남의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는 농, 정 말 가관이었다.

한낮의 재미 중 하나는 메뚜기를 잡는 일이다. 독길을 따라 내려가면 풀숲에 팔딱거리는 메뚜기가 있다. 이놈들은 풀 색깔과 거의 같아서 바로 앞에서도 못 알아보는 경우도 많았다. 기다란 앞줄기에 각자 잡은 메뚜기를 꺾어 들고 집으로 달려오면 일하는 언니가 가마솥에 들기름을 두르고, 소금을 쳐가며 메뚜기를 구워준다. 사내놈들은 그래도 몇 마리 먹지만. 나 같은 어린 막내는 고작 한, 두 마리 얻어먹는 것이 고작이다. 고소하던 메뚜기의 맛!

한여름에 밤중에 가끔 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다. 이튿날 아침이 되면 우리는 모두 망태기 하나씩을 메고, 바람에 떨어진 사과를 주우러 나간다. 양이 엄청나다. 이런 날은 해 질 무렵이 되면 동네 아낙들이 소쿠리를 기지고 와서 떨어져 흠이 생긴 사과를 받으러 온다. 이런 사과가 더 맛이 있어서다.

개학날이 돌아오면 우리는 모두 사랑채 누각 마루에 배를 깔고 누워. 밀린 방학 숙제를 해야 했다. 모범답안지는 모두가 그대로 베껴 썼지만, 아무도 탓 하지 않았다. 이윽고 대구 집으로 돌아가는 날, 우리는 고모가 조금씩 싸준 곡물 보따리를 안고, 독길 10리를 걸어서 하양 기차역으로 향했다. 버스는 다니는 시간도 일정치 않아서 하양 역까지 가서 기차를 탔다. 당시의 기차는 그야말로 칙칙푹푹 기차다. 기차 창밖에서는 대여섯 개의 사과를 그물망처럼 생긴 주머니에 담아서 팔고 있다.

“능금 사이소. 맛있는 능금 사이소. 찐 달걀도 있어예”

딱딱한 나무 의자와 더 두꺼워 보이는 나무 등받이에 흔들리며, 그리운 집으로 간다. 대구역에 내리면 모두 눈에 검정 안경테를 두르고 있었다. 목탄 연기가 눈가에 계속 묻은 것이다. 아무도 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눈에 검은 테 안경을 썼으니 말이다.

꿈에도 그리던 이 와촌 과수원은 사라지고 없다. 사촌오빠가 대구에서 사업을 할 생각으로, 이 아름답던 과수원을 팔아버리고 말았다. 세월이 많이 흘러 내가 50대 나이에 들어섰을 때 대구를 방문할 일이 있었다. ‘어서 가보자 와촌으로.’ 택시를 타고 와촌을 얘기하자, 기사 분이 지금은 대구시의 외곽이란다. 어렵게 도착한 옛 과수원은 너무나 변해 있었다. 맑은 물이 항상 솟아나던 “새보”는 물이 말라버려서 이제는 연탄재를 버리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사과 향으로 넘쳐나던 큰 사과 광은 잿소를 키우는 장소로 변해서 악취가 나고 있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작은 규모의 과수원은 왜 그리 초라해 보이던지. 주민들은 “새보” 물이 마른 것은 주인이 바뀌어서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정부에서 낙동강 줄기 물길을 바꾸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차라리 가지 말 것을... 첫사랑은 늙어서 다시 만나지 말라는 말이 맞나보다.

나는 여전히 와촌 과수원이 그리다. 잠이 안 오거나, 무서운 치과병원 의자에 앉았을 때, 나는 눈을 감고 와촌 과수원을 떠올린다. 가슴 가득 햇살이 들어와 안긴다. 그리운 내 마음의 고향이다.



찔레꽃 향기 - 강용원

꽃에 따라 향기가 나듯이 사람따라 나는 냄새같은 인품의 향기기가 다르다.

냄새중에 가장 악취는 사람 썩는 냄새라고 한다. 그보다 더 고약한 악취는 인품이 훼손되는 썩는 냄새 일것이다.

사람마다 나는 냄새가 있다. 어떤 향기일까

찔레꽃향기는 순수하다. 어딘가 외로운듯 어딘가 수줍은듯 슬픈듯이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은 곳에 숨어 피는꽃이다. 고운 여인의 소복입은 순정같다.

초여름 숲속에 피는 찔레꽃을 본다. 화려한 봄꽃들이 한바탕 제 자랑을 하고 간 뒤, 숲속 어디 선가 풍겨오는 향기가 있다. 순수한 향기, 순박하면서도 어떤 품위를 높여 주는 향기다. 인간의 언어로는 그 향기를 표현할 수가 없다. 아련한 향수를 온 산천에 뿌려 놓는다.

나는 찔레꽃 향기가 휘날리는 여름밤이 행복하다. 코를 가까이 대어야 맡을 수 있는 꽃향기도 있지만 찔레 꽃은 아무도 모르게 온 숲속을 헤치며 그 향기를 뿌리고 다닌다.

화려한 장미과의 족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숨겨둔채 찔레는 순박하게 가냘픈 작은 꽃으로 소복의 흰색으로 수줍게도 핀다. 찔레를 보면 나는 어쩐지 순정(純情)이라는 옛이야기 같은 향수에 젖는다.

찔레꽃을 미국에서 보면서, 찔레꽃은 우리 한국에서 보아야 한다는 생각도 해본다. 찔레는 죽은 가지에는 월계관을 씌워주고, 가냘픈 나무는 신부의 레이스를 입혀 격려해 주는 꽃이다. 무리를 지어 팀웍으로 얽혀 살고, 꺾일수록 잘릴수록 더욱 뻗는 찔레의 끈질김이 있다. 도둑을 막아주는 담장을 만들어 악을 저지할 때 가시를 쓸 줄 아는 꽃이다.

눈 속에 피어나는 매화, 서리 맞고도 피는 국화, 진흙 속에 피는 연꽃, 그리고 사시사철 푸르고 곧기만 한 송죽(松竹)은 뜻이나 절개가 그 화품이요, 치자, 동백, 사계화 등은 깐깐한 기골이 그 화품이요, 모란과 작약은 부귀(當貴)가 화품이며, 해바라기, 두충(杜;中)은 충(忠)과 열(烈)이 화 품이고, 박꽃, 맨드라미, 봉선화는 절개와 성실함이, 진달래 개나라는 분명한 거취가 그 화품이다.

동물을 인간성의 야욕성에 비교하고, 꽃은 인간성의 품위를 상징한다. 인간의 성격도 품위도 꽃 향기 만큼 다양하다. 늑대나 여우같은 사람성품이 있는가 하면, 옥잠화 같고 달맞이꽃 같은 향기를 발하는 인품이 있다.

꽃에 따라 향기가 나듯이 사람따라 나는 냄새같은 인품의 향기기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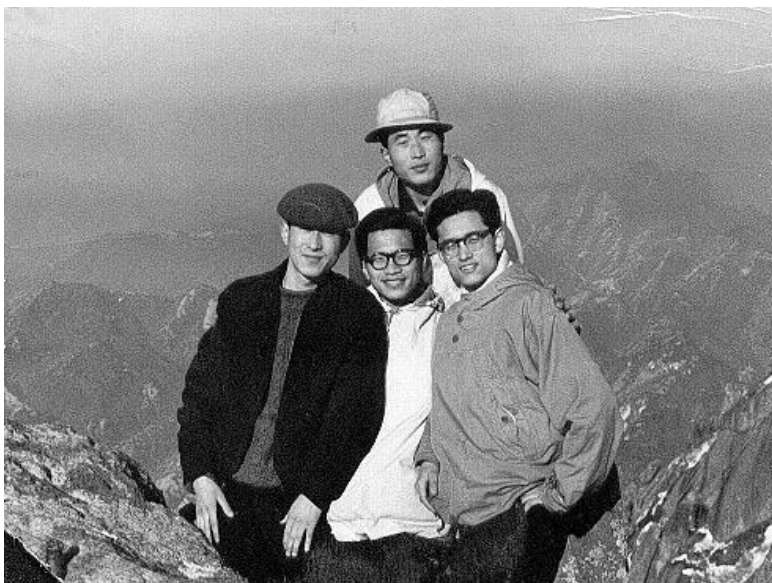
냄새중에 가장 악취는 사람 썩는 냄새라고 한다. 그보다 더 고약한 악취는 인품이 훼손되는 썩는 냄새 일것이다.

사람마다 나는 냄새가 있다. 향기일까 악취일까 찔레꽃향기는 순수하다. 어딘가 외로운듯
어딘가 수줍은듯 슬픈듯이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은 곳에 숨어 피는 꽃이다

호수에 물방울 하나 일렁일 때 내 마음도 같이 출렁이고, 풀잎하나 바람에 흔들릴 때, 들꽃 하나
나 반겨줄 때 내 마음도 덩달아 미소짓는 자연과의 대화 없는 인간성은 잔혹할 수밖에 없는
문명이 만든 괴물에 불과하다. 밤하늘 별들과 속삭일 줄 모르는 인성병어리 마비, 철근
콘크리트에 철판을 깐 심장으로 어찌 인간들끼리인들 훈훈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200리길 찔레꽃 피어 있는 먼 이국땅, 미국의 허드슨 강변을 달리며 오늘 따라 차창이 몇 번이
나 질게 흐려지고 있다.

글. 강용원



백운대 정상



김상철 님 서울시장역임(타계하심)



조복희 님(경희대 교수 역임)

[매경춘추]한류(韓流)- 임성준

한류 열풍이 아시아 중화권과 동남아를 넘어 중동 아랍문화권까지 강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월 서울 공관장 회의에서도 한류가 큰 화두가 되었는데 중동에 근무하는 C대사 얘기에 따르면 우리 TV드라마가 저녁 늦은시간에 방영되는 바람에 많은 주재국 사람들이 늦잠을 자게 되어 직장에도 지각사태가 많이 빚어지고 있다는 애교어린 불평을 듣고 있다고 한다. 우리 문화 정서가 단순히 아시아인들에게만 어울리는 것을 넘어 다른 문화권에도 먹힐 수 있다는 증거다.

좁은 의미의 한류 열풍은 주로 우리나라 영화 TV드라마 대중음악 공연 등 대중 예술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하겠다.

아시아인, 나아가서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한류에 공감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우월성과 상품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문화 그리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일본문화보다 왜 우리 문화에 특별히 공감하는 것일까. 또 여자 양궁, 쇼트트랙(빙상), LPGA프로골프 무대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 세계를 제패하는 현상과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고속 인터넷 보급 세계 1위 등 IT산업 선도국이 된 사실은 한류 열풍과는 전혀 무관한 일일까.

필자는 우리 젊은이들이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현상도 넓은 의미에서 한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한류 열풍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다른 생각이다. 한류가 지금 이 시기에 주목을 끌게 된 데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동북아 문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국문화는 5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사회주의체제라는 족쇄 때문에 과거 찬란했던 문화적 위상을 되찾는 데는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며, 일본문화는 일본열도 밖에서는 공감대가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를 빚어낸 조상들 손자락에서 비롯된 우리 문화의 우월성과 경쟁력은 당분간 많은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받으면서 한류 열풍 외연을 넓혀 나갈 것으로 믿는다.

[임성준주캐나다대사]



1기 사진



한라산의 구름 - 남상우

남상우

제주에 내려온지 어느새 5년째. 은퇴 후 제주에 사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지만, 나의 제주살이는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해방 후 제주 4.3항쟁 와중에 집사람 친척 중 한두 분이 희생되자, 장인을 포함한 3형제가 고향을 떠나 일본에 정착하였다. 장인은 딸들이 일본 남자와 엮이는 것을 절대 볼 수 없다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모두 한국으로 떠밀어 보냈다. 맏딸인 집사람을 시작으로 세 딸 모두 서울에서 1년 어학연수 후에 해외동포 입학 특례로 대학생활을 시작하였다. 집사람 한국어 실력은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겨운 수준이었다. 그런데 내 가까운 친구가 간간히 집사람의 부족한 한국어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후임으로 나를 소개한 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나의 제주와의 첫 대면은 신혼여행이었다. 신혼여행이라기보다 집사람 친척들과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이었다. 조출하지만 족히 이들에 걸친 통과외래가 피곤했던 탓인지, 제주의 풍광 같은 것은 그다지 인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은퇴를 전후하여 이러저 러하게 그려본 노후생활의 그림 속에도 제주살이는 들어있지 않았다. 집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몇 년 전 장인께서 제주에 돌아와 뼈를 묻겠다고 선언하시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70년 넘게 일본에 사셨지만 귀소본능은 어쩔 수 없으신가보다. 그간 두 처제가 일본에서 부모님 이웃에 살면서 보살폈으니 이젠 우리가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 친아버지를 나이 여섯에, 어머니를 고3 때 여윈 나로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장인이 50여년 전에 제주에 밭을 사서 조성한 감귤밭이 있었다. 그간 멀고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들이 손을 바꾸어가며 경작해 왔으나 근년에는 관리해줄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농산물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품종개량이 안된 감귤은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수확도 예전 같지 않은데다 농사일 품값은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수년 전 감귤밭을 가로질러 애월과 조천을 잇는 마지막 구간 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경작면적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런 상황에서 즐지에 집사람과 내가 과수원을 떠맡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장인. 장모는 낙담하셨으나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격리의무가 풀리는대로 오겠노라고 몇 번이나 확인하셨다. 현대 격리 상황이 해를 거듭해 이어지고 장인이 90세를 훌쩍 넘기면서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수 십년간 거의 매일 아침 해오시던 동네 골목 청소를 중단하셨단다. 드디어 코로나가 진 정되었으나 도교-제주 직항이 열리기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신다. 최근 한 두 개 저가항 공사가 금년 하반기에 직항을 재개할지 모른다는 소식이 들린다. 집사람은 항공사의 휠체어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지, 부모님의 제주 정착이 과연 순조로울지 걱정이 커 지고 있다.

우리가 이곳에 이주한 후 한 해에 고작 두어번 찾아오던 서울 사는 큰 딸 니가 근래에 부쩍 제주를 자주 내려온다. 그런데 3의 관심은 부모보다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퐁퐁 이인 것 같다. 3년 전 누군가에 의해 과수원 돌담 밑에 버려졌던 놈이다. 부슬부슬 봄 비가 내리던 3월초

택배상자 속에서 울고 있던 생후 한두달 되었을까 하던 놈이다. 정 신없이 나대지만 제법 머리가 있는 것 같아 푹푹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두 살 이 되면서 제법 준수하고 점잖아졌다. 이곳 지인들에 의하면 제주에 흔히 보이는 진돗 개 믹스견일 거란다.

푹푹이는 요즘 J가 만드는 동영상 모델 일을 제법 잘 해내고 있다. 동영상 제작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 J가 과제물로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 수시로 휴대폰을 셀카봉에 고정하고 감귤밭 잡초 위 혹은 농가주택 데크에 앉아있거나 잠자고 있는 푹푹이를 30분 이고 한 시간이고 계속 촬영한다. 이런 유튜브를 누가 볼까 싶지만 많은 이들에게 적잖은 힐링이 된다는 것이다. 힘겨운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이나 도시생활에 찌든 어른 들에게도.

J가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되면 우리 감귤밭을 고정 배경으로 하겠다. 그러니 감귤밭 에 적당한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한다. 그런데 일찍이 이 감귤밭은 이름이 있었다, 나운(祭雲, 한라산 구름)농원이라고. 네이버 지도에서도 검색되어 나온다. 나운은 장인을 대신하여 과수원을 관리하던 집사람 할아버지의 필명이다. 할아버지는 일평생 한량으로 사시면서 서예와 한시에 능하셨던 것 같다. 國展에서 입상하기도 했다고 한다. 詩를 읽을 줄 아는 자식이 없어서 어떡할까 했는데 -. 하시면서 두어 개 한시 액자를 집사람과의 결혼 선물로 주시기도 했다.

농원이라고 하기엔 남세스런 규모지만 이는 나운농원 이름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아마도 詩的이고 목가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리라. 산 정상을 희롱하며 유유히 노니는 흰구름이나 산 허리며 골짜기를 흐르는 몽환적인 안개구름 같은 - 하지만 한라산은 이렇게 평화롭고 여유로운 모습을 그리 쉽사리 보여주지 않는다. 한라산 의 구름은 세차게 비를 뿌리며 어둡고 험하고 거센 얼굴로 다가오기 일쑤다.

오랜 옛날 여러번의 화산분출로 형성된 한라산은 제주도의 전부라고 할 정도다. 이곳 척박한 땅에 생계를 위해 돌과 바람을 숙명처럼 안고 씨름하며 가혹한 부역에도 시달리던 토박이들의 고단한 삶이 이어져 왔다. 바다에서는 수많은 뱃사람들이 거친 풍랑에 휩쓸려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외침도 있었다. 몽고의 침입에 마지막까지 버티다 산화한 삼별초 항쟁에 뒤이은 제주 지배 100년. 아직도 산재해 있는 일제 치하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주요 군사시설 잔재들. 임금님의 노여움을 사 땅끝으로 내쫓긴 많은 유배자들의 인고의 한숨. 기적같이 다가온 건국을 전후한 부질없는 편가름으로 안타깝고 허망하게 쓸어져 간 숭한 4.3항쟁의 주검들. 靈山이라하여 해마다 산정에서 국태민안을 비는 山祭를 지냈다는 한라산의 구름은 이것들 모두를 똑똑히 목도하였으리라.

집사람 할아버지가 바라본 한라산 구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생각으로 본인의 필명을 나운이라 지으셨을까? 한라산 정상에 걸친 구름처럼 세상을 넓은 시야로 내려 다 보며 바람의 방향을 가늠하는 예지를 가지셨을까? 아들들을 모두 일본으로 보내고, 큰아들은 조총련에 맞서는 民團의 간부로 오래 활동하였다. 그런데 집사람 할아버지를 떠올릴 때면 종종 외롭고 한스러웠을지 모르는 내 아버지의 상상 속 마지막 모습이 오버랩되곤 한다.

아버지는 충청도 소도시의 면사무소 말단직원이셨던 것 같다. 그러던 중 인천 앞 먼바다 이작도라는 섬 초등학교에 선생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 가셨다. 마땅찮아 하시는 어머니를 딱 1년만 살다 오자고 어렵게 설득하셨단다. 월급이란 학부모들이 수확하여 조금씩 가져다 주는 보리,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이 전부였다. 섬 아이들을 10년 넘게 성심껏 가르치던 어느 여름날 북한 군함이 선착장에 정박하고 군인들이 학교 건물을 막사로 쓴다며

점유하였다. 6.25가 발발한 것이다. 그런데 번갈은 후퇴와 수복의 와중에 누군가 밀고를 한 모양이다. 인민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육지에 호송되어 얼마간의 옥고를 치르셨다. 휴전을 몇 달 앞두고 풀려나신 후에는 가족들을 섬에 남겨둔 채 홀로 강원도 산골의 한 초등학교로 부임해 가셨다. 그러나 옥고 때문인지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 객지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으신 것이다.

2005년 우리 정부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서로를 할권 상처를 어루만지고 화해의 포옹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자는 바람에서, 그래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지만 또다시 불어닥친 신냉전 기류와 격화된 한반도의 이념 대립으로 그렇게 갈망해온 평화는 더 요원해진 듯 싶다. 이해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길목에 제주도는 여전히 아픔과 갈등의 섬으로 떠있다.

집사람과 나는 최근에 J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문하였다. 한라산 정상이 한눈에 들어오는 나운농원 완만한 언덕에 새로 지을 집과 기존 돌집 내부 리노베이션을 설계하는 것이다. 집 지으며 10년을 늙는다는데 이 나이에 집을 짓다니! 애초에 제주살이가 길어야 10년 아니겠냐던 집사람이 돌변하여 새 집 짓는데 흥분되어 있는 것이 사뭇 놀랍다. 언젠가는 이가 나운농장의 주인이 되어있을까? 그 즈음 J가 바라보는 한라산 정상의 구름은 오늘보다 더 해맑고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1기 사진 부가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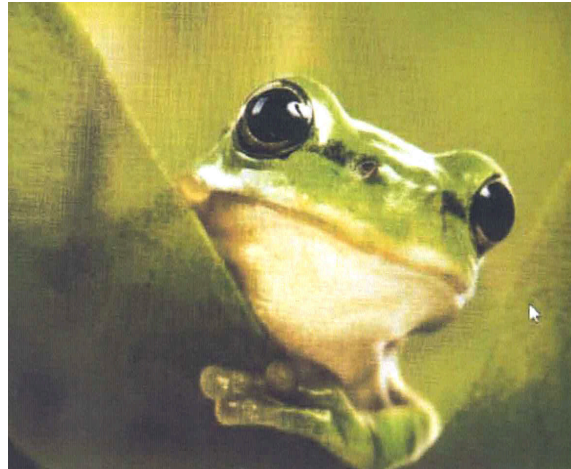
1기들 60代 중반인가?



애견과 함께
조경호 님(영문학) 2024. 봄



김재학 님
(한국모터분야 개발선구자)



1기들 드디어 70대 중반이 넘었어요. 2024년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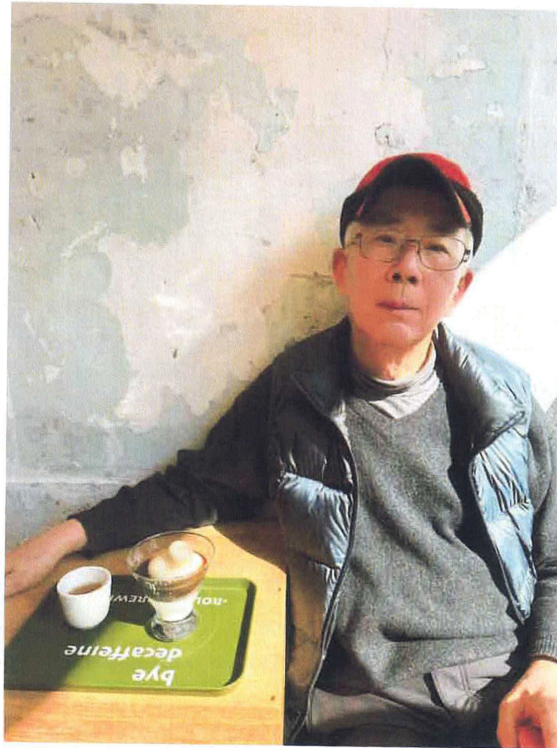
이해돈 님(한국제약계에서 활약)



정광화 님 KRISS 물리학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안승호 님(한국제약 개발 및 연구) 훌륭한 색소폰 연주자



남상우 님(KDI를 이끌었던 경제학자)



안정옥 님(평생 사회사업과 어린이 봉사생활)



김재학 님(기계공학 전문으로 한국모터개발 선두자)

1기 유화 그림 - 조경호



조경호 작품(유화)
“도시의 겨울”